

책의 향기

현실은 결코 야동을 이길 수 없다

포르노 이슈: 포르노로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야기
 몸문화연구소 엮음·336쪽·2만 원·그린비

미국의 한 정보기술(IT)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 ‘엑스비디오닷컴(xvideo.com)’의 한 달 페이지 뷰는 44억 건에 이른다. 뉴욕타임스의 10배다. 또 남성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순위의 상위권은 대부분 포르노 사이트가 차지한다. 그뿐인가.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하철 안에서 ‘야동’을 보거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보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포르노가 일상화됐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포르노라는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길 꺼린다. 몸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현상을 연구하는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의 연구진 7명은 과감히 포르노를 학문의 광장으로 끌어냈다. 이들은 상아탑 위에서 쟈 체하기보다 ‘야동의 중심에서 야동을 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화학 영문학 철학 등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야동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포르노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포르노의 도덕적 당위성을 묻는 기존 연구서들과 달리 솔직하고 다채로운 분석이 돋보인다.

포르노를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으로 분석한 장대의 서울대 교수의 글이 흥미롭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종족 번식을 위해 되도록 많은 섹스 파트너를 추구하며, 포르노의 주요 소비자가 되었다. 그런데 포르노를 많이 시청한다고 해서 종족 번식의 확률이 높아지진 않는다. 장 교수는 이를 뇌의 ‘거울뉴런’으로 풀이한다. 거울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의 몸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든다. 따라서 뇌의 관점에서는 포르노를 시청하기만 해도 그와 같은 성행위를 하는 신경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포르노에 집착하는 이유를 ‘실재를 향한 열정’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김중감 건국대 교수는 “현실의 섹스가 디카페인 커피처럼 뭔가 2% 부족한 섹스라면 포르노는 에스프레소처럼 순도 높은 예기식 섹스”라며 “포르노 중독자에게 최종 목적지는 섹스가 아니라 과잉 섹스, ‘더욱더’를 향한 욕망의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이 욕망의 과정이 포르노 향유를 단순 쾌락이 아니라 실재를 향한 열정의 계기로 만든다는 설명이다.

‘왜 여성은 남성만큼 포르노를 많이 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은정 연구원은 여성이 욕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보수적 성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의식이 포르노를 꺼리게 한다고 분석한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전투의 심리학
 데이브 그로스먼, 로런 W 크리스텐슨 지음
 박수민 옮김
 624쪽·2만5000원
 열린책들

전작 ‘살인의 심리학’으로 살해학(killology)이란 장르를 개척한 저자의 후속작. 현직 군인과 경찰이 경험한 수백 건의 실제 전투 사례를 수집하고 옛 전쟁의 문헌도 연구해 정리했다. 전투 중 나타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초점을 맞췄다. 자책과 혐오, 인지왜곡과 공포증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서다. 얼마 전 나온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수린재)와 함께 읽으면 전쟁의 참혹한 진실에 더 다가설 수 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
 조엘 바칸 지음
 이창신 옮김
 356쪽·1만4000원
 알에이치코리아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 이사를 거듭했다. 그만큼 부모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민감하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기업을 꼽는다. 법학자인 저자는 현대 버전의 까다로운 맹모가 되어 장난감에 쓰이는 해로운 화학물질부터 불법 아동노동까지 다양한 문제를 고발한다. 본문이나 주석에 유해 어린이 상품을 파는 기업의 목록, 해로운 화학물이 첨가된 용품 목록을 첨부해 이해를 돕는다. 글로벌 기업 사례 외에 전반적으로 미국 실정에 맞춰져 있는 점은 아쉽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부처의 고행-예수의 십자가, 인간의 악행 온몸으로 고발

붓다와 회생양
 정일권 지음
 383쪽·1만7000원
 SFC

회생양 자처한 순교자
심산유곡 숨은 출가승
세상의 부당함에 '맛쟁'

영국의 정치사상가 이샤야 벌린은 사상을 틀로 분류했다. 다양한 비밀을 아는 여우형과 단 하나의 위대한 비밀을 파고드는 고슴도치형으로. 20세기 후반 프랑스 사상가의 대부분이 여우지만 르네 지라르만큼은 고슴도치다.

지라르는 문학비평가로서 수많은 신화를 분석하다가 예수신화의 독특함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신화가 회생양(왕따)에 대한 집단 폭력을 은폐하는데, 유독 예수신화만은 그 꺾임 회생제의의 부당함을 고발한다는 발견. 예수가 사탄의 길이라고 맹비난한 것은

타자의 욕망을 경쟁적으로 모방하다가 생긴 집단적 스트레스를 무고한 회생양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며,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아 들인 것은 스스로 회생양이 됨으로써 그 부당함을 온몸으로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통찰이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는 지라르 이론을 열쇠 삼아 다양한 종교 속에 은폐돼 있는 폭력적 기원을 추적하는 학제 간 연구를 펼쳤다. 지라르 이론에 입각한 불교사상 분석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초기불교에 감춰진 회생양 메커니즘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을 저술했다.

그는 명상의 종교이자 평화의 종교로 알려진 불교가 디오니소스적인 파계의 종교(정글의 종교)이자 죽음의 종교였다고 고발한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명상은 내면의 열을 불길 삼아 출가자 자신을 회생

제물로 삼는 정신적 회생제의였다. 붓다의 두개골 돌출은 그 ‘불 제사’의 결과물이며, 불가의 소신공양 전통도 그 연장선에 있다.

출가승의 물 모델은 브라마 살해라는 최악의 죄업을 짓기 위해 지상에서 12년 동안 해골로 된 발우를 지니고 고행하는 힌두교 ‘파계의 신’ 시바다. 시바는 제가자들의 죄를 대신 먹여주는 회생양의 신이다. 출가승이 제가자들이 주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받아먹는 공양이야말로 그들의 악업을 대신 받아먹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정작 왜 ‘살아있는 시체(a living dead)’가 되어 심산유곡에 처박힌 출가승들이 공경의 대상이 되는지를 모른다. 그들이 예수처럼 스스로 회생양의 길을 걸음으로써 인간세상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회생제의적 폭력을 차단해준다는 것을 사람들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저렇게 큰 황소가 우리처럼 풀만 먹는다고?”

후와 하나와 소
 이와무라 카즈오 글 그림
 김숙 옮김·32쪽·1만 원
 북뱅크

더 넓은 들판에 나온
귀여운 토끼 남매

새로운 세상 만나며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나들이에 나선 토끼 남매 후와 하나. 엄마는 “누가 다가오면 풀숲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단단히 이릅니다. 꽃향기 가득한 바람을 가르며 남매는 들판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나무 같은 갈색 다리가 보입니다. 잔뜩 웅크린 채 숨죽인 남매에게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농장에 사는 소란다.”

후와 하나는 커다란 소가 토끼인 자신들처럼 풀을 먹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다. 소 아줌마를 이리저리 뜯어보던 아이들은
 얼굴도, 눈도, 코도, 몸통도 엄청 큰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곧 아기도 태어난다니. 토끼 오누이는 두 손을 모

아 큰 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아기야! 들리니?” 온통 새로운 세상과 만나면서 토끼도 조금씩 자라납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300자 다이제스트

도덕에 초점 맞춘 일본판 ‘정의란 무엇인가’

모럴 아포리아
 사토 야스쿠니, 미조구치 고헤이 엮음
 김일방 이승연 옮김
 216쪽·1만2000원
 글항아리

철학자 20명이 쓴 일본판 ‘정의란 무엇인가’. 단, 이 책은 정의 대신 도덕에 초점을 맞췄다. ‘전쟁은 어디까지가 악인가’ ‘생명은 어떤 경우라도 존중 받아야 하는가’ ‘인생에 궁극적 의의는 있는가’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는가’… 책에 담긴 19개 주제는 19권의 책으로 따로 써도 될 만큼 흥미롭고 심오하다. 이는 맹점이기도 하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각각 10쪽 남짓하게 다루 요약이 잘된 철학 노트를 읽는 기분이다. 대학 교양수업 교재로는 적절하지만 일반 독자에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자책-혐오-트라우마… 전쟁의 참혹한 진실

전투의 심리학
 데이브 그로스먼, 로런 W 크리스텐슨 지음
 박수민 옮김
 624쪽·2만5000원
 열린책들

전작 ‘살인의 심리학’으로 살해학(killology)이란 장르를 개척한 저자의 후속작. 현직 군인과 경찰이 경험한 수백 건의 실제 전투 사례를 수집하고 옛 전쟁의 문헌도 연구해 정리했다. 전투 중 나타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초점을 맞췄다. 자책과 혐오, 인지왜곡과 공포증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서다. 얼마 전 나온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수린재)와 함께 읽으면 전쟁의 참혹한 진실에 더 다가설 수 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맹모가 된 법학자, 장난감을 고발하는데…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
 조엘 바칸 지음
 이창신 옮김
 356쪽·1만4000원
 알에이치코리아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 이사를 거듭했다. 그만큼 부모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민감하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기업을 꼽는다. 법학자인 저자는 현대 버전의 까다로운 맹모가 되어 장난감에 쓰이는 해로운 화학물질부터 불법 아동노동까지 다양한 문제를 고발한다. 본문이나 주석에 유해 어린이 상품을 파는 기업의 목록, 해로운 화학물이 첨가된 용품 목록을 첨부해 이해를 돕는다. 글로벌 기업 사례 외에 전반적으로 미국 실정에 맞춰져 있는 점은 아쉽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21명이 쓴 한국에서 女기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은 바꾸고 역사는 기록하라
 신동식 외 20인 지음
 최원석 엮음
 288쪽·1만4000원
 푸르메

최은희 여기자상 수상자 21명의 취재기와 기사를 엮은 책. 여자들이 이전에 기지이고 엄마, 아내, 며느리, 딸로 살아가야 하는 여기자들의 치열한 삶을 담았다. 여성 차별이 심하던 1960년대 여기자의 삶부터 이라크전쟁 종군 취재까지 각양각색의 취재기가 소개된다. 팔자가 드세 기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려나기도 하는 여기자의 설움도 실었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여기자가 가진 강점 등을 알려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여기자 혹은 여기자 지망생에게 조언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새로 나온 책

레이시 이야기
 레이시 이야기

레이시 이야기(스티브 마틴 지음·홍시)=미국 미술경매 회사 소더비의 미술품 딜러 레이시의 성공과 좌절을 그린 장편소설. 미술품 경매를 둘러싼 생생한 현장 얘기들이 흥미롭다. 1만5000원

삶의 의미(오정미 지음·온북스)=자신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시인의 성찰을 잔잔한 시어에 담은 시집. 8000원

소설로 읽는 중국사 1, 2(조관희 지음·돌베개)=‘초한지’ ‘금병매’ ‘아류정전’ 같은 시대를 대표하는 중국 소설들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렸다. 1권은 근대 이전, 2권은 현대사에 초점을 맞췄다. 각권 1만3000원

아틀라스 서양미술사(슈테파니 펠크 등 지음·현암사)=선사 시대부터 20세기까지 미술작품 550여 점을 중심으로 서양 미술의 역사를 다뤘다. 각 시대마다 작품과 관련된 지도와 도표를 세세하게 배치해 이해를 도왔다. 4만2000원

예술이란 무엇인가(블프강 울리히 지음·휴머니스트)=독일 카를스루에 조형예술전문대 교수인 저자가 예술을 규정하는 11가지 개념을 망라했다. 예술가가 추구한 미의 세계와 시대가 예술을 수용하는 방식을 고찰해 예술의 본질을 고민했다. 2만 원

공룡 이후(도널드 프로세로 지음·뿌리와이파리)=공룡이 사라진 뒤 신생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조명했다. 특히 포유류가 그 생태적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 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2만8000원

시사 영작을 하는 10가지 공식(이창성 지음·한나래출판사)=30년 동안 영자신문 기자생활을 한 저자가 시사 이슈 영작 능력을 키우는 학습법을 소개한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영어 글쓰기 노하우를 제시했다. 1만5000원